

선교 활동 보고 저 아기 잠들었네

"저 아기 잠들었네"라는 성탄 찬양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곡조에 영감을 주는 가사가 실려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과 가사 너머에 있는 비전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기 잠들었네"라는 부분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살과 피를 지닌 한 인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찬양합니다.

"저 아기 잠들었네"를 부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회중 속에서, 그리고 그 너머 거리와 전 세계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라는 가사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예수님이 온전한 선물이기도 하지요)께 드린 선물을 노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선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기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가사를 통해 우리는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통해 지원받는 이들을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노래합니다. 응급 상황과 건강 상황에 대한 지원, 또 교육의 기회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은 의료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은퇴목회자들, 교회 사역자들, 그 가족들을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헌금은 소수 인종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장로교 산하 학교와 대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학업을 지속해 교회와 세계를 그들의 은사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의 지원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인하여, 온전한 선물이신 예수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심정으로 달려가 "그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선물, 우리의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축복하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이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아멘**.